

OCI, 폴리실리콘 부진으로 “위험”

우리증권, 가수요 없고 미국의 중국산 규제로 ... 경쟁력은 강화

OCI가 단기적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이 주장했다.

우리투자증권은 5월7일 OCI의 목표주가를 22% 상향조정했다.

김위 연구원은 “OCI는 단기적으로는 독일의 태양광보조금정책 변화로 가수요 기대가 어렵고 미국의 중국산 셀 반보조금·반덤핑 관세 부과로 미국수출에 타격을 받으며 가격상승 여력도 부족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OCI는 고품질 폴리실리콘(Polysilicon)과 고객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등으로 가동률 100%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2012년 유럽의 태양광 설치량이 줄어들지만 중국, 미국, 일본, 인디아, 동남아의 설치량이 늘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OCI는 사업구조 조정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돼 하반기로 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투자증권은 OCI에 대해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30만원으로 22% 상향조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7>